

# 美 DNC 개막... '여자 오바마' 해리스 상승세에 UP!

〈민주당 전당대회〉

1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3박4일 일정으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막을 올렸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상승세에 고무된 당원들과, 현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맞선 시위대로 긴장감이 감도는 기묘한 구도 아래 첫날 일정이 시작됐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11월5일 결선일을 향한 본격 출정식이다.

행사 현장은 시카고 불스와 시카고 블랙 호크스의 홈구장 유나이티드 센터와 미시간 호수 근처 컨벤션센터인 매코미 플레이스다. 이미 1~5일 대의원들 대상의 가상 호명투표를 통해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가운데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이 총출동한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트럼프가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될 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행사 첫날 구호는 '국민을 위해'였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영부인 질 여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사로 등장했다. '미래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내건 20일엔 시카고가 정치적으로 향한 베팅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 해리스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와 J.B 프리츠키 일리노이 주지사가 무대에 오른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주제인 셋째 날 21일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를 소개할 예정이며 당내에서



19~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DNC) 행사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



유나이티드센터에 장식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벽화 앞에서 지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대선후보 수락연설 '미래를 위해'때 절정 이룰듯 역대 대통령·각계 스타 출동... 스위프트 참석에 촉각

주목을 받아 온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해리스 지지 연설을 한다. '백인 오바마'로 불려 온 부티지지 장관은 동성 배우자를 가진 미 역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고위직이다. 공화당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22일 해리스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이 행사의 절정이다. '미래를 위해'를 주제로 내걸고 '미국의 미래와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집권 비전을 공표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중산층 살리기' 구호가 나온 것은 2024년 대선에 처음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이래 공화당 측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서민·약자·소

수자 정당으로 통하던 민주당의 주류가 지난 30여 년 고학력 엘리트로 달라졌다. 초엘리트들의 인종·성별이 좀 더 다양해진 것도 변화다.

그 외 연사로 척 슈머(상원 원내대표)·하킵 제프리스(하원 원내대표)·덕 더빈(하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원내 주요 인사들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눈길을 끌 연사는 공화당 정치인 즉 '해리스를 위한 공화당원' 캠페인을 주도해 온 애덤 긴저어(일리노이) 의원일 것이다. 2022년 리즈 체니 전 의원과 함께 1.6 의회 난입사태 조사를 위한 하원 특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대거 출동도 기대를 모았다. 리버럴 경향이 우세한 대중연예나 첨단기술 방면에선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 자연히 공화당 전당대회 때보다 화려한 무대 및 출연진이 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케리 워싱턴·토니 골드윈·민디 캘링어나 나바로가 차례차례 진행을 맡는다. 모두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유명인들이다.

나바로는 자칭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의 정치 입문 아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이외에 존 레전드·줄리아·루이스·드레이퍼·조안 제트·앤 블랙·조지·데일·라·우조·아두바·앤서니·앤더슨·이언·아미티지·아벳·니콜·브라운·데이비드·크로스·존·크라이어·제시·타이어·퍼거슨·다나·구리라·리처드·카인드·비지·필립스·세릴·리·렐프 등이 참석한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온세가 무대

에 설지 기대를 모은다. 이들 모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바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해리스 후보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비온세의 경우 자기 히트곡 '프리덤'을 해리스 선거 유세에 사용하도록 허락해 사실상의 지지 표명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유럽 투어 중인 스위프트가 20일 마지막 일정인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마친 후 셋째·넷째 날(21·22일) 중 참석하게 될 것을 지지자와 팬들이 고대하고 있다.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과 별개로 스위프트 팬들에 의한 '스위프트스 포 카말라'라는 해리스 지지 그룹이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무대에 서게 된 것도 역대 전당대회와 달랐던 모습이다. 24세의 여성 생식권(낙태권·재생산권) 운동가 데자 폭스는 첫날 연설자였다. 2021일 각각 연단에 설 무슬림인 나벨라 누르와 라빈 아메리카 이민자 2세 카를로스 에두아르

두 에스파냐 역시 말레니알세다·2세대 인플루언서다. 기후변화와 여성 재생산권 문제를 주로 언급해 온 올리비아 줄리야나 역시도 '자유'에 대해 연설한다.

인플루언서들에게 처음으로 '기자처럼' 취재·보도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2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들의 영향력을 인정한 결과다. 전통 매체보다 SNS 의존도가 높은 젊은층 공약을 위한 노력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약 절반이 SNS를 통해 뉴스의 일부를 접하며 30세 이하 성인 3명 중 1명이 틱톡에서 뉴스를 본다.

한편 미 전역의 200여 개 단체가 집결한 'DNC 행진'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으로 예고됐다. 민주당 역사상 1968년 8월 '피의 전당대회' 악몽이 있다.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 대선후보가 암살돼 당이 사분오열된 가운데 베트남전쟁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해 11월 대선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불과 0.7%p 차였다.

행사장 외부엔 프리츠키 주지사 명령으로 250명의 주 방위군이 대기 중이다. 시카고시 역시 경찰과 수개월간 비상상황을 상정해 준비해 왔다.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또한 시위대 추과 이동 경로 등을 조율하며 소통했다고 전해진다.

임영민 기자 imms@skyedaily.com

# 스타벅스 신임 CEO "앱 주문 대기시간 줄여라... 빨리빨리"

## 매장 속도전에 집중... 1150억 원 상당 보수 상승 기대

스타벅스가 '모바일 앱 주문'으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 해결에 나섰다. 이것이 1000만 달러(135억 원) 등 엄청난 보수로 영입된 새 최고경영자(CEO)의 과제 1순위로 꼽혔다.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한 후 매장에서 기다리며 답답해하는 고객들, 밀려든 주문의 처리와 음료 제조에 허덕이는 바리스타들 모습이 스타벅스

에서 흔해졌다고 지적된다. 스타벅스 경영에 계속 관여해 온 하워드 슈츠 전 CEO가 6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타벅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았다. 모바일 주문이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용자가 주문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 우유 거품과 시럽 종류 등 세부 사항을 다양하게 추가하면서 주문 내용이

복잡해지곤 한다. 이 같은 주문에 대응하다 보니 주문 후 음료를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슈츠 전 CEO는 자신이 오전 8시 시카고의 한 지점을 방문했을 때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며 "모바일 주문자들이 여럿 매장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게 뒤죽박죽 됐다. 그것은 (내가 아는) 스타벅스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노믹의 연구 책임자 로버트 번은 일상적 음료 매장 경우 '이

용 편의성'을 강조한다. 이런 문제가 매장 바리스타의 부담을 가중시켜 2021년부터 시작된 스타벅스 노조 결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내 스타벅스 노조는 회사가 가격 할인이나 공짜음료 제공 등 관측 행사를 진행할 때 모바일 주문 기능을 끄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9월9일자로 취임할 스타벅스 새 CEO 브라이언 니콜(50)은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CEO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온라인 주문을 효율화해 매출을 끌어올린 것이다. 치폴레에서 온라인 주문 전용 매

뉴를 출시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로봇공학 회사와의 협업으로 선택 사항이 많은 '부리토 볼' 메뉴의 신속 조리 실험에 성공한 결과라고 CNBC가 전했다. 니콜은 2018년부터 6년 반 치폴레를 이끌면서 회사 이익을 약 7배 늘렸으며 이 기간 치폴레 주가 역시 약 800% 올랐다. 앞서 AP통신과 CNBC 등이 스타벅스의 규제 당국 제출 서류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치폴레를 떠나 스타벅스로 옮기면서 현금 1000만 달러 외 주식 7500만 달러(약 1016억 원)어치 등 8500만



엄청난 보수로 영입된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신임 CEO. 연합뉴스

달러(약 1151억 원) 상당의 보수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주식 보수는 회사 성과에 따라 3~4년으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CEO 기본급으로 160만 달러(약 22억 원)가 지급되며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현금 보상으로 최대 880만 달러(약 119억 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 회계 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간 최대 2300만 달러(약 312억 원)의 주식 보너스를 쟁길 자격도 주어진다.

임영민 기자 imms@skyedaily.com

**한국에너지공단**

**KEA AGENCY**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